

### 2013 광주 자동차산업 결산 **꺾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 광주경제 재도약 엔진 장착

올해 광주지역 산업계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가동이다. 가을부터 본격 가동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계획은 지역산업을 '자동차 원톱(One Top)' 체제로 재편시켰다. 올해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을 재조명하고, 2014년의 비전을 상·하 시리스로 살펴본다.

### 생산유발 효과 2조7000억 수출 효과 13억달러 한달 생산 5만대 돌파...부품협력업체 동반성장

▷62만대 증산 추진배경=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1년 12월7일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내놨다. 광주 2공장의 46.1UPH(시간당 생산대수)를 66UPH(58UPH로 최종타겟)로 높이고, 3공장도 23.1UPH에서 26UPH(추후 25.1UPH로 수정)로 증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9년 9월 50만대 양산체제에 돌입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0년 41만1196대를 양산한 데 이어 2011년에는 48만8154대라는 사상 최대 생산실적을 달성했다. 또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 62만대 증산이 쉽게 달성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지역 산업계도 매출 및 수출 증대와 청년실업 해소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증산 프로젝트는 노조의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협의가 지연됐고, 당초 목표였던 2월을 넘겨 4개월 가량 지체됐다. 광주시가 노조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민감한 반응 끝에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 6월 말, 2공장 증산 UPH를 58UPH로 올리고, 419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실화 된 증산효과=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출범은 당장 실현되지 못했다. 임금교섭 등에 따른 파업으로 증산 효과는 다른 파업으로 증산 효과는 가시화되지 못했고, 교섭이 마무리된 10월이 넘어서야 빛을 발했다. 하지만 본격 가동의 효과는 놀라웠다. 같은 달 광주공장은 1개월 동안 4만6215대를 생산했고, 11월에는 광주공장 사상 첫 5만대 생산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광주공장

이 역대 최대생산, 최대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산추세라면 생산량 증가로, 매출증대는 물론이고 지역 내 수출량 증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 광주지점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이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어나는 경우 광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는 2.7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조원, 수출유발효과는 12.8억에 달한다.  
광주공장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역 자동차관련 부품업체들의 관심도 늘었다. 광주시도 자동차 부품사 유치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광주공장 협력업체의 동반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품협력업체 가운데 증산과정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나온 것도 증산효과로 볼 수 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효과는 내년엔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인 물량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부품협력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 조립라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6월 노사의 62만대 증산 합의를 통해 기아차 화성공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최종입찰 3일 남기고 큐캐피탈파트너스 광주은행 공동인수 추진 중단 “광주상의 도대체 뭘했나” 비난 빗발

### 광주·전남상공인연합 오늘 매각입찰 참여 못할 위기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광주은행 공동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던 사모투자전문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지난 20일 '공동인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23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매각 최종입찰에 지역자본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의 주축인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떤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지도 23일 출자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환원이라는 전제 아래 추진됐던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의 광주은행 인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상의에는 '그들

안 뭘 했나'는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지난 20일 광주은행 인수 추진에 대한 조희공시 답변에서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 회원사와의 사모투자펀드(PEF) 결성을 통한 광주은행 공동인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광주은행 매각 입찰을 앞두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찬성하는 위원들의 수가 절반을 넘지 않아 인수 안건이 부결됐다 것을 이유로 들었다.  
상공인연합은 불과 몇새 전인 16일 업무협약을 통해 큐캐피탈파트너스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금융주력 PEF의 적격 GP(무한책임사원)로 선정하고, 재무적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액 조달, PEF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어 18일에는 지역기

업 20여개사가 잇따라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9위 규모의 사모투자회사가 일주일 채 되지 않아 공동인수를 포기하면서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23일 광주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조차 못할 위기에 몰렸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GP가 없으면 현재 조달된 자금은 2000억원 규모로, 인수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라며 "입찰 참여를 위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산업계와 금융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GP 선정과 지역기업의 투자확약서 확보로 '광주은행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하던 광주상의에 대해 '사실상 재확약 어려움으로 인수가 힘든데도 무리하게 여권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질타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적격 GP와 이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일찌감치 인수전을 진행한 반면, 상공인연합은 입찰 예정일 일주일 전에서야 GP를 선정했고, 입찰 사흘 전에 상황이 어려워져 손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르는 등 지도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GP가 없는 상황에서 23일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냐 다를 없다"며 "사실상 지역환원을 위한 광주은행 인수는 물 건너 간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 최종입찰제안서 마감일은 23일 오후 17시까지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2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공공기관 임원자리

#### 네 곳 중 한 곳 공백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 네 곳 중 한 곳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설문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직(기관장·이사·감사) 1398개 중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자리는 358개(25.6%)로 집계됐다.  
공기업 30곳은 임원직 349개 중 135개(38.7%)가 비어 있었다. 기재부 국정감사를 한 지난 10월 16일의 124개보다 11개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6 17 22 31 34 37	3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484,438,375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3,386,172	42
3	5개 숫자 일치 1,469,345	1,526
4	4개 숫자 일치 50,000	79,150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2,032



보해는 지난 20일 전남대 후문에서 '매이(MAY) 크리스마스 나잇' 퍼포먼스를 진행해 '매이'의 광주지역 입성을 알렸다. <보해 제공>

## 보해 플럼와인 '매이' 광주지역 성공 입성

### 런칭 기념 퍼포먼스 '크리스마스 나잇' 성황

'보해(회장 임요섭)'가 플럼와인 '매이(MAY)'의 광주지역 런칭을 기념해 진행한 '매이(MAY) 크리스마스 나잇' 퍼포먼스가 성료, 광주지역의 성공적인 입성을 알렸다.  
지난 20일 북구 전남대 후문과 동구 구시청에서 진행된 '매이(MAY) 크리스마스 나잇' 퍼포먼스는 개그우먼 안영미와 코미디빅리그의 박홍수

의 거리 퍼포먼스 및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로 시작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진행된 안영미, 박홍수의 광주 지역 업소 방문으로 광주지역 소비자들에게 '매이'를 홍보했다. 플럼와인 '매이(MAY)'는 지난 5월에 출시된 신기념 매출주요, 프리미엄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여기에 모던하고 슬림한 병 라인과 고급 주얼리를 연상케 하는 라벨과 병뚜껍 디자인은 당당하고 시크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황금빛 컬러는 화려한 미감을 시각적으로 살려준다.  
보해 관계자는 "'매이(MAY)'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030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광주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형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옆 투레유로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 2014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Business학과 석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5명(8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주말에 실시함  
· FTABusiness모델, 무역경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영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13. 12. 23(월) 10:00~ 2014. 01. 08(수)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유웨이 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콜센터 1588-6968
입학지원서(서류전형) 및 서류제출	2013. 12. 23(월) 10:00~ 2014. 01. 09(목)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우)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2(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합격자 발표	2014. 02. 04(화) 예정	·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chosun.ac.kr/~grad)에 발표함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Business학과 문의 바랍니다.  
전화: 대학원 062)230-6401 FTABusiness학과 062)230-7283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